

“사회 여성문제 보살사상으로 극복을”

현대사회의 여성문제와 불교

조계종 교육원 인문강좌 - 조승미 서강대 종교학 연구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음)이 스님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3월 16일, 23일, 30일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불교인문사회문화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에 나선 조승미 서강대 종교학연구소 연구원은 ‘현대사회의 여성문제와 불교’에 대해 강연했다. 조승미 교수는 가족, 성차별, 성문제, 낙태, 여성성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여성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불교가 현대여성이 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교육원은 5월까지 고운기 교수의 ‘스토리텔링 삼국유사’, 최재천 변호사의 ‘스님을 위한 법률이야기’, 최로연 동국대 박사의 ‘타베트불교의 향기’, 각목 스님의 ‘초기불교 특강’ 등을 진행한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현대여성의 사회적 문제

불교는 오랜 시간 동안 여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남녀 평등관에서 서부터 여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까지 다양하게 조명됐지만, 정작 불교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불교가 어떤 경험과 비전을 제공했는지 알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불교와 여성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여성’ 뿐 아니라, ‘여성들의 불교’가 함께 조명되어야 합니다. 현대여성의 문제는 비단 여성의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우울증, 자살, 성차별, 가족해체 문제 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불교의 <전녀신경(轉女身經)>에는 다양한 여성의 삶과 고통들이 담겨있습니다. 경전에 실린 여성의 삶은 집안의 힘겨운 노동, 임신과 출산, 가정폭력, 구속과 억압 등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고대사회의 여성 삶이기는 하나 현대여성의 삶과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한국 기혼여성들은 가사, 양육, 직장일 등 삼중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때문에 현대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주부 우울증 1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한국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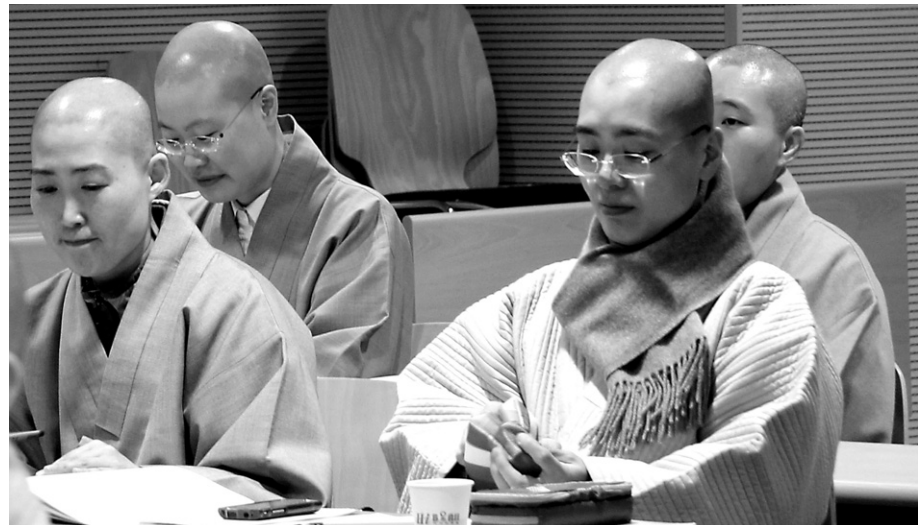
보통 언론에서는 40~50대 가정들의 우울증·자살에만 초점을 맞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시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우울증·자살률은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는 질문에 ‘네’라는 답이 연령대별로 10%씩 높게 나왔습니다.

여성도 남성보다 우울한 것은 사회관계 속에서 무력한 입장, 불평등한 맥락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고학력 출신의 여성들이 늘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은 낮은 지위와 권력으로 역할이 분리됩니다.

특히 사찰의 주요 신도인 노인여성불자들은 호르몬의 변화와 경제, 배우자, 건강, 암마로서의 역할 상실로 사회적인 박탈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여성의 역할로부터 벗어나야

여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



적, 성별분업, 모성의 가치복원, 사회적 모성의 확대 등이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제도로 시급하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전환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이런 사고전환의 도모를 위한 상상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녀신경>에는 여성의 삶과 고통이 담겨있지만 이는 진정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승보살의 마음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녀신경>에 ‘이 몸을 근심해야 한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여성이 여성의 몸을 남자로 바꾸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남자로의 변성(變性)을 여성구제로 삼았던 것은 이 경전뿐 만이 아닙니다. 아마 타 정도관련 경전에서도 이 같은 의미의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여성은 여성의 존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 여성을 남자로의 변성왕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성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 불교에서는 붓다가 된다는 것은 많은 신체적인 특성의 성취로 설명됐습니다. 그 중 거대한 남성성기가 말처럼 숨겨져 있는 음마장상(陰摩藏相)의 획득이 한 요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강한 남성성과 근육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의미는 여성이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교설이 형성되게 만들었습니다. 즉, 여자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대승불교에는 성별차이의 비실체성으로 의식이 확대돼, 성의 전환이 경전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반야경>은 대승불교의 성의 비실체성을 대표하는 경전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스토리가 종종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담무갈보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최고의 가르침을 구했는데 이때 “법을 말하는 사람은 방편의 힘이 있는 까닭에 다섯 가지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에 대해 청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식으로 담무갈보살이 제시됐는데, 담무갈보살은 육만팔천의 여인들과 오욕을 즐기면서 하루에 세 번 반야바라밀을 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반야경>의 이 같은 설정은 기존에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성적 교접을 거부했다면, 욕망의 실제도 없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거부할 다시 거부하는 형태의 사상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성이라는 말도 여성을 여성의



조승미 교수는 여성성을 중시한 보살사상이 현대여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가정·직장 시달리는 한국여성은 우울증 세계 1위 보살사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사회제도 개선위해 불교적 사유를

역할로부터 분리시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종속적 역할을 강조하는 여성 성역할론이 존재합니다. 변성은 불교가 여성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도로 제시된 것이라 해석해야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들의 즉각적인 성전환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공(空)사상에 근거해 성(性)도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 등장하는 용왕의 딸은 목걸이를 던져 상대방이 받는 순간에 남자로 변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술 같은 일은 현실재현의 기대보다, 고정관념의 타파목적에서 이상화된 이미지구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기불교연구자들에 의하면 붓다의 교단운영의 기본적인 입장은 세속사회의 관습과 인식에 준해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붓다가 비구니 교단을 허락하지 않았던 점도 세속의 관습을 기준으로 한 입장이었습니다. 출가승가의 많은 계율도 불교 신자들을 비롯한 세속 사회의 관습과 사고방식에 의거해 존경을 잃지 않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은 현대 사회의 관습과 인식에 준해 불교문화 창출과 교리에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나타냅니다.

보살사상으로 여성성 부각해야

불교에서 양성평등과 여성해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은 단연 ‘보살사상’입니다. 보살사상은 여성성의 중시를 의미합니다. <반야경>은 반야바라밀을 어머니로 비유하고, 보살수행의 전형으로 모성의 경험과 모성적 사유에 주목해 이를 적극적으로 교리화 했습니다. 여성의 모성을 사회적 모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현대 여성주의의 과제와 전망을 불교에서 이미 구현해 온 것입니다.

여성성을 중시한 보살사상의 전통은 현대에서 그 가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레아 불교가 진정 사회 속에서 중생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시대가 도래되면서 불교는 해탈 지향을 넘어, 모든 생명을 구제하고자하는 보살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모성적 가치를 중시한 불교전통의 극점은 여래장 사상입니다. 모든 존재를 ‘여래장’ 즉, ‘여래의 자궁’으로 명명한 점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경험이 가장 이상적인 가치로 승화된 것입니다. 여성을 성스럽게 승화시키는 타 종교의 여성찬미와는 다른 긍정의 시각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에서는 여성의 보살핌과 보육의 능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이것을 사회와 가정을 지켜 나가게 하는 원리로 중시합니다. 즉, 여성의 모성은 극도로 찬미하지만 반대로 여성의 독립과 자아실현의 욕구는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성의 가치 회복은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성별분업 사고방식의 해체 구조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주의종교의 여성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성찬미가 오히려 억압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성의 고통에 관심해 온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과감히 재해석하여 여성성을 중시해 온 보살사상의 전통과 그 가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전통을 회복하는 반면, 여성의 해방 과제해결과 행복한 여성의 삶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실에서 중생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불교로 거듭날 것입니다.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각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NAVER Do!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